

지역 매 아리

만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 정기회의

김제시 만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만경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만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회의 때 특화사업으로 결정되어 실시한 온기로 겨울나기방한조끼지원사업과 새학기꿈나무응원책가방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역복지현안 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파랑새밀반찬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추진 예정인 파랑새밀반찬 지원사업은 만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따뜻한 밀반찬을 직접 조리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 남성 30가구를 대상으로 밀반찬 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진섭 민간위원장은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 드리는 만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인 민간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솔선수발해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동행라이온스클럽, 세탁기 후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부) 전주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 양미)이 완주군 경천면 저소득층 가정에 온기를 전했다.

경천면은 전주동행라이온스클럽은 관내 한 가정을 방문해 60만원 상당의 세탁기와 생활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전주동행라이온스클럽은 100여명의 여성회원들이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세탁기를 후원받은 김모씨는 "집도 웅크리고 남편의 병원 치료와 어려운 형편으로 세탁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세탁기를 후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양미 회장은 "전주동행라이온스클럽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한 관심과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황정순 경천면장은 "경천면의 어려운 가정을 찾아 세탁기를 후원해 준 전주동행라이온스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천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도시민 귀농학교 진행

## 예비 귀농귀촌인 2박3일간 방문

귀농귀촌 지역으로 완주군이 주목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예비 귀농귀촌인 36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귀농학교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도시민 귀농학교는 귀농귀촌 정책 설



완주군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도시민 귀농학교를 진행했다.

명, 마을 공동체 및 귀농 농가방문, 농기계 특강, 귀농귀촌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로컬푸드에 관심이 쏠릴 때부터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완주군의 차별화된 정책인 마을 공동체 사업과 로컬푸드 가공센터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귀농 농가방문,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 예비 귀농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정착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여성, 청년 등 다방면에 맞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매년 귀농귀촌 교육 및 지역탐방을 할 수 있는 2박3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월 11일에 2박3일 팜투어가 예정돼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국가암검진으로 암, 예방할 수 있어요

## 김제, 7월부터는 폐암 검진 추가 진행

국가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완치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폐암이 추가돼 총 6

개 암에 대한 검진이 진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암검진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암

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지 못한 병원을 찾는데 그 결과 이미 수술로 제거할 수 없을 만큼 암이 커져 있거나 다른 조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를 받음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역사문화 길잡이 강사 양성

##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구성 완주학 맘 과정 시작

완주군이 역사문화 길잡이 강사인 완주학 맘을 양성한다. 완주군은 평생학습 완주학 맘(Mom) 양성과정을 지역대학인 우석대학교(평생교육원)와 함께 지난 8일부터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시작했다

평생학습으로 접근한 완주학맘 양성과정은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자가 먼저 이해하고, 지역학 전문가 역량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완주학 활성화에 위해 아이들,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엄마강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남성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학습자는 완주군민으로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귀농귀촌자 등 40명으로 구성됐으며, 11월 20일까지 주1회 2시간씩 총 24차시 48시간 진행되며, 기본, 심화, 응용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추진단계로 학습 과정 중 평생학습 동아리를 결성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예비 주민강사로서 실천 경험을 쌓는 '삼삼오오하하해' 과정을 거쳐 학교밖 방과후 마을학교, 학교 내 방과후학교 등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습형 일자리 까지 연계한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평생학습 완주학맘 과정을 통해 완주군의 역사적 내용과 가치를 알고 역사적 정체성을 인식하며 어른세대와 아이세대의 역사, 문화 소통 창구를 열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황산면 복지기동대는 13일 다가올 여름을 맞이하여 관내 독거노인 10가구의 28개 노후방충망을 새 방충망으로 교체했다.

# 독거노인가구 노후방충망 교체

## 황산면 복지기동대

김제시 황산면(면장 강갑구) 복지기동대(대장 윤종근)는 13일 다가올 여름을 맞이하여 관내 독거노인 10가구의 28개 노후방충망을 새 방충망으로 교체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독거노인 가구의 낡고 파손된 방충망을 교체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여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의 후원을 받아 황산면복지기동대, 지평선드레회, 치우드림봉사단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한편 황산면 복지기동대는 2016년에 김제시 최초로 발족하여 25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원들은 전기, 전통, 수도, 건

축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모여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을 가지고 현재까지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새 방충망으로 교체지원을 받은 독거노인 최모씨(만79세)는 여름만 되면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벌레가 들어와 더위도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더니 이제 시원하게 문열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자원봉사야말로 이웃사랑의 시작이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된다면서 복지기동대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행정과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확산·전파하고,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실무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안전선 팀장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정의(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및 필요성과,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법률 파악·

소극적 법령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아울러 안전선 강사는 규제 불필요한 확대해석은 금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는 적극적 법령해석과 혁신을 촉진하는 신산업 자율 보장 및 자치법규 적극 활용을 통한 신속한 행정 구현 등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의 취지를 잘 살릴 것을 당부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제시의 명성에 걸맞게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